

## 신문사설 한영번역에서의 태도전환양상: 요청표현을 중심으로\*

신 진 원  
(부산대)

### 1. 서론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나 저자의 태도는 의사소통행위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신문사설처럼 신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독자의 태도를 유도하도록 고안된 텍스트의 경우는 적절한 메시지전달태도의 설정이 의사소통의 목적성취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Bolivar 1994).

메시지전달태도를 결정하는 언어기제 중 하나로서 요청표현은 신문사설이란 장르적 특징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종철 2005).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행위로 요청을 정의한다면, 요청표현이란 이런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

---

\* 본 논문은 BK21플러스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1) 본 논문의 요청표현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베커(Becker 1982)의 정의를 수용한 것이다.

으며, 신문이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로 신문사의 견해를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언어기제인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설의 메시지전달태도 설정을 위해, 저자인 저널리스트는 텍스트가 작용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독자와의 이상적인 거리를 면밀히 측정하여 그 표현들을 신중히 고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청표현이 너무 명시적이면 신문텍스트가 갖추어야 하는 객관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너무 암시적인 요청표현은 텍스트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는 신문사나 저널리스트의 입장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번역에서의 문제는 독자와의 거리를 보여주는 요청의 직접성 정도가 그것이 작용하는 문화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번역이란 원천 텍스트의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목표텍스트의 생산자인 번역가와 목표언어의 독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의사소통상황이기 때문이다(Snell-Hornby 1995:2). 이런 점에서 번역의 과정은 다시쓰기로 설명되기도 한다. 번역문은 도착어 문화권에서 원문과 무관하게 하나의 독자적인 텍스트로서 독자들에게 수용되기 때문에 번역문의 독자를 고려하여 다시쓰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혜영 2012:67).

이런 번역의 다시쓰기는 텍스트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김혜영(2012)은 목표텍스트독자에게 수용될 것을 고려하여 단어나 문장을 넘어서 텍스트 차원에서 의도적인 변형을 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메시지전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청표현이 신문사설의 한영번역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며, 특정 변화양상과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번역가의 다시쓰기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메시지전달태도의 전환양상이나 이 전환양상과 텍스트 구조적 측면과 같은 다양한 전환요인과의 관계를 조명한 번역연구는 지금까지 그리 많지

---

“...‘request’ refers inclusively to an utterance that is intended to indicate the speaker’s desire to regulate the behaviour of the listener - that is, to get the listener to do something(요청이란 청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 청자로 하여금 무언이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발화이다)” (Becker 1982:1)

않은 듯하다. 태도에 대한 번역연구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예측되는 연구의 어려움, 즉 태도변화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어려움이나 두 언어를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질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부분 의존해야하는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번역과정에서의 메시지 전달태도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보고 번역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메시지전달태도가 어떻게 번역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시도 중 하나로, 신문사설에 나타나는 요청표현의 한영번역양상을 텍스트 구조와 관련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청표현이 갖는 직접성의 정도가 한영번역과정에서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리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락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 위해, 먼저 언어학의 선행연구를 통해 신문사설 요청표현의 언어적 특징을 화용론적 측면에서 논해보고 번역연구를 위한 분석의 기준과 틀을 마련한다. 동시에 신문사설의 텍스트 구성에서 영어와 한국어 텍스트의 차이를 살펴보고 요청표현 번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태도전환과의 관련성을 예측한다. 그런 다음, 번역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전달태도의 전환요인을 번역연구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실제 신문사설텍스트를 통해 한영번역과정에서 요청표현이 갖는 직접성의 정도 변화를 중심으로 번역양상을 조사한다. 또한 텍스트 단락별 번역양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신문사설 요청표현의 화용론적 특징과 텍스트 구성

요청표현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주로 명령문, 당위표시, 요청수행동사, 소망표시동사, 청유법, 암시표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된다(이종철2005). 이남성(2003)의 연구는 한국어신문사설에 나타난 요청표현으로 ‘~하라(명령)’, ‘~해야 한다(당위)’, ‘~는가/인가(수사의문)’, ‘~당부한다/촉구한다(수행문)’, ‘~바란다(소망)’, ‘~보고 싶다(소망)’, ‘~바람직하다(암시)’, ‘~중요하다(암

시)', '~때이다(암시)',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어의 경우는 지안노니(Giannoni 2008)와 본야드(Bonyadi 2011)가 신문사설에 나타나는 수사적 특징을 논하면서, 'Do ~(명령)', '~should/must/ought to (당위)', '수사의문문', 'I wish(소망)' 등을 사설에 자주 나타나는 문장형태로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사설에서 나타나는 요청표현들은 형태적 분류들에서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종철(2005), 윤시운(2008), 블룸-쿨카, 하우스와 캐스퍼(Blum-Kulka, House & Kasper 1989)는 이런 표현들을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먼저 이종철(2005:225)은 신문사설에 나타나는 요청표현을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직접성이 강한 표현, 약한 표현으로 구분하고 그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직접성이 비교적 강한 표현으로는 명령문, 당위표시, 요청 수행동사, 소망표시 동사, 청유법이 사용된 요청표현을 들었으며, '~때이다', '~는 옳지 않다' 등의 표현들은 보다 암시적인 표현으로서 직접성이 약한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런 분류의 기준으로는 맥락의 부재상태에서 해당 표현만으로 요청의 의미가 전달되는가를 주목했다. 이 분류는 영어 요청행위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논한 블룸-쿨카, 하우스와 캐스퍼(1989)의 분류를 보다 일반화한 것으로, 담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세한 분류를 피할 수 있는 대략적인 구분으로 보인다.

블룸-쿨카, 하우스와 캐스퍼(1989:18)는 그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요청표현을 9단계로 구분하고 크게 세 가지 상위범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구분을 바탕으로 윤시운(2008)은 한국어의 요청표현을 구분기준에 맞추어 분류하였는데, 그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신문사설의 요청표현을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문사설 요청표현의 직접성 분류

	형태	한국어	영어
직접성이 강한 범주	명령문	-하라	Do it.
	수행문	-하기를 촉구한다	I'm asking you to do it
	완화된 수행문	-하기를 당부한다/요망한다.	I would like to ask you to do it

직접성이 약한 범주	당위 진술	-어야 한다/어서는 안된다.	You should/ought to do it.
	소망 진술	-하기를 바란다.	I want you to do it.
	제안 진술	-하는게 어떨까	You had better do it
	수사의문문	-안할 것인가?	Who does?
암시적인 범주	강한 암시	-할 때이다/하는 것이 옳다 -할 필요가 있다.	It is time to do it It is desirable to do it
	약한 암시	-예: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다.	If you don't do it, nothing changes.

먼저 직접성이 강한 범주는 맥락 부재 상에서도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말 그대로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표현이다. 이 범주에는 명령문, 수행문, 완화된 수행문의 형태로 요청을 하는 표현들이 포함된다. 먼저, 명령문은 ‘~하라’와 같이 직접성이 가장 강한 표현으로 요청을 가장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표현이다. 수행문이란 ‘ask’, ‘order’, ‘촉구하다’ 와 같은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를 사용하여 요청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며, 완화된 수행문(Hedged Performative verb)은 수행동사 앞에 ‘would like’, ‘want’와 같은 직접성을 완화시키는 어휘가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한국어의 경우는 ‘당부한다’, ‘요망하다’와 같이 수행동사가 갖는 직접성이 조금 완화된 채 표현한 경우이다. 이 형태들은 ‘~하라’의 명령보다는 덜 직접적이기는 하지만 수행동사를 통해 화자의 존재가 보다 부각되면서 당위진술보다 직접성이 강한 표현으로 분류된다.

반면, 직접성이 약한 범주에는 당위, 청유, 수사의문문, 제안, 소망의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요청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해당 맥락에서만 요청의 의미를 갖게 됨으로 그 직접성의 정도가 줄어든 표현들이다. 당위진술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수사의문문은 미리 정해진 행동방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당위 진술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또한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행할 것을 구속하기 보다는 화자의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소망 진술들도 이 범주로 분류된다.

신문사설에서는 이런 직접성이 약한 범주의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 그 이유는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뉴스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이 고려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영어와 한국어 신문뉴스텍스트에 나타난 어휘적 특징을 코퍼스를 통해 분석한 김혜영 강범모(2011)에서는 ‘~해야 한다/안된다’, ‘should’와 같은 당위진술표현을 영어와 한국어신문사설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요청표현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요청표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언이나 가정을 통해 암시적으로 요청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암시적 범주로 분류되는데, 이런 암시적 표현들은 맥락을 통해서만 요청의 전달로 해석되는 표현들로 영어와 한국어에서 맥락에 따라 각기 다양한 표현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천텍스트인 한국어신문사설에 나타난 표현으로는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중앙 10.7)’, ‘미국 눈치를 보며 호지부지할 사안이 아니다(한겨레 10.3)’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어의 경우는 ‘it is wrong to claim that the Blue House destroyed the files in question(중앙 9.25 번역본)’, ‘it is time to display leadership as powerhouse in cyber space(동아 10.19 번역본)’와 같이 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방법으로서 가치를 나타내는 말에 의존하는 표현들로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존적인 표현들이다.

신문사설은 그 장르가 갖는 명확한 수사적 특징이 드러나는 글쓰기다. 이런 텍스트의 특징은 선택된 어휘나 형태뿐만 아니라 그 글들이 구성되는 논증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신문사설의 구조는 제목과 본문의 단위로 나뉘고 본문은 다시 서론(lead), 본론(body), 결론(ending) 등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조 하에 서론에서는 사안을 요약제시하고 본론에서는 해당사안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한 후 결론에서는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다(신명선 박재영 2004). 그러나 이런 장르적 특징이 모든 문화에서 정확히 똑같이 통용되지는 않는다. 영어와 한국어 신문사설을 대조 분석한 김용진(1999)의 연구를 보면, 두 사설에서 글의 구성 특징이나 구성방식이 다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문사설이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락별 특징들을 요청표현과 관련하여 들여다보고 영어와 한국어사설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먼저 제목의 경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출발점을 화제로써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메시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유현주 2009:47). 따라서 저자의 요청이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영어와 한국어신문사설의 제목차이를 분석한 김용진(2003:47-50)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원천텍스트에 해당하는 한국어사설의 제목이 영어사설에 비해 좀 더 자세한 표현을 구사하고 화제 사건을 좀 더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이것은 제목에서의 요청표현의 출현빈도나 유형이 영어와 한국어사설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론은 화제 또는 화제사건의 제시, 배경 상황의 설명, 저자의 입장 또는 주장의 제시로 구성된다. 두 언어사설에서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영어의 경우는 서론에서 저자의 입장이나 주장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는 반면, 한국어사설은 제목을 통해 저자의 입장을 이미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서론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신 배경상황을 묘사적 또는 설명적으로 상세히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유현주 2009:49).

본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영어와 한국어사설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영어사설은 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대한 논의도 주로 본론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다. 즉 ‘문제-해결’의 ‘논증’이 주로 본론에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에서는 문제와 해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거나,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전체 텍스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어사설에서는 종종 본론의 논증 과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결론 및 해결을 종결 단락에서 제시하여 결론에서 논증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구조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사설에서는 결론부분에서 저자의 주장이나 입장을 드러내는 요청표현이 자주 나타난다(유현주 2009:50).

이와 같은 특징들은 한국 신문사설의 요청표현을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에서 논한 이남성(2003: 139)의 연구에서도 기술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요청표현은 주장하는 바가 응축되어 있는 제목에서 주로 나타나며, 글을 마무리 짓는 결론부분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설명된다. 이것은 사실의 구조에서 제목은 저자의 의도를 가장 명시적이고 간략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서론은 사건이 간략하게 기술되고 본론에서는 논지의 정당성이 제시되며, 결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행동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처럼 신문사설의 요청표현은 사설이란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락에 따라 그 출현빈도나 형태가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사설이 갖는 구조적 차이는 번역과정에서 태도전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 2.2. 번역과정에서의 태도전환

신문사설에 나타나는 요청표현의 번역과정 논의 역시 요청표현을 둘러싼 두 언어의 화용론적 맥락의 차이와 신문사설 장르가 갖는 텍스트 구성상의 차이를 번역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먼저 화용론적 측면의 논의는 오스틴(Austin)이 주장한 ‘발화수반효과(Perlocutionary effect)’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오스틴은 모든 발화문은 발화내용을 뜻하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발화의도를 뜻하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를 뜻하는 ‘발화수반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Mey 2001:95). 요청표현을 예로 들어보면, ‘정부에 협조하라’, ‘정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발화행위가 된다. 이 발화행위는 발화순간 명령이나, 지시, 요청 등과 같은 특정 발화행위를 동반한다<sup>2)</sup>. 이런 행위를 통해 청자의 감정, 사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은 발화수반효과가 되는 것이다.

번역에서의 문제는 서로 다른 두 문화적 맥락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이 다른 두 의사소통상황에서는 ‘정부에 협조하라’는 하나의 발화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발화수반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즉 ‘정부에 협조하라’는 명령이 한국어와 같은 문화에서는 메시지의 명료한 전달로 기대되는 발화수반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영어문화에서는 너무 직접적인 표현으로 청자나 독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하는 발화수반효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청표현의 직접성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발화행위를 통해 나타날

2) 각각의 표현들은 화행에서 ‘명령’, ‘지시’, ‘요청’이라는 발화 행위를 동반하는 데, 본 연구에서 블룸-쿨카, 하우스와 캐스퍼(1989:18)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이 모든 표현들을 요청표현으로 포함시킨다.

발화효과의 강약이다. 하지만 그 직접성의 정도와 발화효과의 강약의 정도가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맥락 하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는 메시지전달태도에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콜러(Koller 1995)는 텍스트나 메시지의 수용자를 그 중심에 놓고 원천텍스트 독자의 반응과 목표텍스트 독자의 반응의 등가를 찾는 화용론적 등가에 중요성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번역행위가 목표로 하는 특정 효과의 달성이 원천텍스트가 갖는 것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Munday 2001:47 재인용).

신문사설의 요청표현을 이런 화용론적 등가의 측면에서 논해보면, 원천텍스트인 신문사설에서 제기된 주장이나 요청이 갖는 효과가 그것의 목표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번역가는 원천텍스트의 명시적이거나 잠재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목표언어의 독자가 받게 될 효과까지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여 목표텍스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 구조적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태도전환에 관한 논의는 텍스트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티姆과 메이슨(Hatim & Mason 1990)은 텍스트를 수사적 목적이나 맥락의 초점에 따라 논쟁적(Argumentative), 설명적(Expositional), 지시적(Instructional) 텍스트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하티姆과 메이슨(1990:149-164)에 따르면 논쟁적 텍스트는 맥락 초점을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Evaluation)에 두고 있으며, 설명적 텍스트유형은 특정 개념들을 그것의 구성요소들로 해체하거나 혹은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에 맥락 초점을 둔다. 지시적 텍스트는 앞으로 해야 할 미래의 행동에 그 맥락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각각의 텍스트는 지시적이거나 논쟁적이지만 않으며 서로 혼재되어있다고 설명한다. 즉, 지시적 텍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지시적 특징만이 나타나지 않으며 논쟁적이거나 설명적인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특징이 다른 특징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데, 그것을 초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사설의 경우는 개념간의 평가에 초점을 두는 논쟁적 텍스트도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행동에 그 맥락의 초점을 두는 지시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번역가는 먼저 텍스트의 그 초점을 찾아내서 번역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그 초점이 논쟁적인 텍스트인 경우, 그 논의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드

리낼 수 있는 방식을 찾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시적 텍스트인 경우는 메시지의 효과에 보다 중점을 두어 번역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초점이 혼재한 신문사설은 결국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중점을 두어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텍스트유형초점에 따른 번역방법에 대한 논의로서 하тім과 메이슨(1990)은 텍스트유형초점과 텍스트 전환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less evaluative the text is, the less need there will be for its structure to be modified in translation. Conversely, the more evaluative the text is, the more scope there may be for modification.

(텍스트가 덜 평가적일 수록 번역에서 구조를 수정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반대로 텍스트가 더 평가적일 수록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Hatim & Mason (1990:187)

평가적인 언어란 주관, 가치, 의견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로, 평가적인 텍스트란 이런 평가적인 언어들이 텍스트에서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마승혜 2011). 이런 평가적인 텍스트일수록 목표언어의 기호학적 특징에 맞는 논증구조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전환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신문사설번역에 적용해 보면 신문사설은 평가적인 요소가 강한 텍스트로서 번역과정에서 텍스트의 구조전환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한국어와 영어의 신문사설의 구조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논증의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구조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신문사설 영어번역의 경우, 텍스트의 구조 자체를 수정하여 진행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 구조의 전환 보다는 원천텍스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락별로 명제나 독자에 대한 태도의 강약을 조절하여 논증의 흐름을 돕고 독자의 반응의 증가를 찾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사설 요청표현의 한영번역에서는 하тім과 메이슨(1990)의 텍스트 유형초점과 텍스트의 전환문제를 텍스트의 구조수정은 물론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락별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태도 등을 포함한 논의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텍스트 분석

#### 3.1. 분석대상과 분석기준

신문사설 요청표현의 번역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과 그 번역본을 분석하였다.

〈표 2〉 분석텍스트 정보

분석텍스트			
ST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TT	번역본	번역본	번역본
비고	JoongAng Daily에 기재	동아 English 온라인판	한겨레 English 온라인판

ST:원천텍스트, TT:목표텍스트

각각의 신문에서 사설을 20개씩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각 기사의 단어 수와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신문사설이란 시대별 어휘사용의 특징이 현저히 드러나는 텍스트로 2013년 8월 이후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의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원문기사에 해당하는 원천텍스트의 요청표현의 직접성 정도가 번역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환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각 신문별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에서 텍스트를 제목과, 서론, 본론(본론은 보통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있어, 이후 첫 번째 단락을 본론1, 두 번째 단락을 본론2, 세 번째를 본론3으로 칭한다), 결론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전달태도 전환양상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하였다.

요청표현의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도전환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블룸-쿨카, 하우스와 캐스퍼(1989:18)의 분류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환 발생을 감지할 수 없는 경우,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전환된 경우, 직접성이 약한 쪽으로 전환된 경우, 그리고 직접성의 변화가 감지되나 미미하여 무표적인(unmarked)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전환들은 번역양상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표 3〉 전환유형

유형	설명
전환 (무)	<표 1>의 분류기준으로 보면, 같은 범주 안에서 같은 형태를 갖은 표현으로 전환된 경우로 태도전환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이다.
전환 (강)	<표 1>의 분류기준으로 보면, 서로 다른 범주 간의 전환으로, 직접성이 보다 강한 범주로의 전환이다. 즉 직접성이 약한 표현이 직접성이 강한 표현으로, 또는 암시적인 표현이 직접성이 약한 표현 또는 강한 표현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전환 (약)	<표 1>의 분류기준으로 보면, 서로 다른 범주 간의 전환으로, 직접성이 보다 약한 범주로의 전환이다. 즉 직접성이 강한 표현이 직접성이 약한 표현으로 또는 보다 암시적인 표현으로, 또는 직접성이 약한 표현에서 보다 암시적인 표현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전환 (무표적)	<표 1>의 분류기준으로 보면, 같은 상위 범주 안에서의 형태상의 전환으로, 직접성의 정도가 변하지는 않지만 원천텍스트와는 다른 어휘적 문법적 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이다. 미약하지만 무표적인 의미적 화용론적 차이를 포함한다.

그 밖에 번역양상으로 요청표현이 속한 문장이 아예 다른 의미로 번역된 경우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텍스트에서는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태도전환분석을 위한 번역양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표 3]의 ‘전환(무)’는 원천텍스트의 요청표현의 직접성의 정도가 목표언어에서 일치되는 표현으로 번역된 경우로 신문사설에 나타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1]

ST: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지금 진행 중인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동력이 돼야 한다.

TT: The resumption of operations of the Kaesong complex should also serve to add momentum to the current efforts to get the six-party talks started again.

<한겨레신문 2013.9.12>

[예 2]

ST: 기업인이 국감장을 회사 홍보하는 자리로 이용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듣고 있겠단 말인가.

TT: If they really used the parliamentary audit sessions to promote their businesses, would the lawmakers sit quietly and listen?

<동아일보 2013. 10.17>

[예 1]의 경우 ‘돼야 한다’로 나타난 당위진술이 영어목표텍스트에서도 ‘should serve to’라는 당위표시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직접성의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전환(무)’로 분류한다. [예 2]의 경우는 청자 또는 독자에게 묻는 형식을 취해 확인을 요구하는 수사의문문이 목표텍스트에서도 같은 형태로 번역되었다.

‘전환(강)’은 [표 1]의 분류기준에서 암시적 표현에서 직접성이 약한 표현으로 범주가 바뀐 경우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3]

ST: 어떤 명분으로든 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건어차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TT: It should not simply reject the proposal out of hand, whatever its rationale.

<한겨레신문 2013. 8.2>

[예 4]

ST: 일본엔 역사 직시하라며 베트남엔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다.

TT: Do not ignore suffering caused by South Koreans while in Vietnam

<한겨레신문 2013. 9.9>

[예 3]은 ‘옳지 않은 자세다’와 같이 직접적인 요청이 드러나지 않는 암시적 표현이 ‘should be’와 같은 당위진술로 전환되어 번역된 경우로, 직접성의 정도가 명시적으로 높아졌다. [예 4] 역시 ‘모순이다’라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에 의존하여 요청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목표텍스트에서 가장 직접성이 강한 명령문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태도전환을 이끄는 또 다른 전략인 ‘전환(약)’은 요청을 요구하는 표현들의 직접성이 보다 약한 쪽으로 전환된 유형이다.

[예 5]

ST: 남북은 공단 재가동을 남북관계 진전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TT: Now it falls on Seoul and Pyongyang to use the newly functioning complex as a springboard for improving relations and resuming the six-p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한겨레신문 2013. 9.12>

[예 6]

ST: 북, 특구 외자유치하려면 개성공단 국제화 앞장서라.

TT: N. Korea should step up to internationalize Kaesong Park.

<동아일보 2013. 10.28>

[예 5]에서 ‘삼아야 할 것이다’와 같은 당위진술이 ‘it fall on’와 같은 약한 암시의 표현으로 요청의 의미가 거의 사라진 경우이다. [예 6]은 ‘앞장서라’와 같이 직접성이 가장 높은 형태가 번역에서 보다 직접성이 완화된 당위진술로 전환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전환(무표적)’은 같은 상위범주 안에서 형태가 달라진 경우이며, 전환으로 직접성의 정도가 변화되었다고 감지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이다.

[예 7]

ST: 만일 이석기 의원 등이 북한과 직접 연계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오히려 북한이 사과해야 할 일 아닌가

TT: If Representative Lee and others prove to be linked to North Korea in plotting a rebellion against the state in the course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and subsequent trials, North Korea must apologize to us, not criticize.

<중앙일보 2013.10.12.>

[예 8]

ST: 국정원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개혁 요구를 피해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빨리 잡기 바란다.

TT: As for the NIS, if it harbors any delusions about using this case to

get out of calls for reform, it should disabuse itself of them at once.

<한겨레신문 2013.9.26>

[예 7]은 ‘할 일 아닌가’와 같은 수사의문문이 ‘must apologize’와 같은 당위진술로 번역된 경우로 두 표현 모두 직접성이 약한 범주에 속해 있다. [예 8]은 ‘접기 바란다’와 같은 소망진술이 ‘should desire’와 같은 당위진술로 번역된 경우인데, 두 표현 모두 직접성이 약한 범주로 분류되지만, 형태적인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모두 ‘전환(무표적)’이라 분류한다.

### 3.2. 분석결과와 논의

텍스트 분석결과는 요청표현의 전반적인 태도전환양상과 텍스트 단락별 양상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3.2.1. 텍스트 전반의 태도전환양상

먼저 요청표현의 번역으로 나타난 태도전환의 전반적 양상분석 조사를 위해 진행된 전환유형별 빈도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전환유형별 빈도수

	전환(무)	전환(강)	전환(약)	전환(무표적)
빈도	133	57	26	42
비율	52 %	22 %	10 %	16 %

전체적으로 전환양상은 원천텍스트의 선택을 그대로 반영한 ‘전환(무)’가 일반적이다. 전체빈도수의 절반정도(52%)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 다음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쪽으로 전환인 ‘전환(강)’,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의 전환인 ‘전환(무표적)’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환(무)’와 ‘전환(무표적)’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한영번역에서의 메시지전달 태도가 대체적으로 원천텍스트 저자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과 바뀌더라도 직접성의 정도 차이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은 화용론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고려되는 요청표현의 번역에서 번역

가는 원천텍스트 저자의 선택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은 텍스트에 나타난 저자의 선택을 수정해야 하는 편집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헤지표현에 대한 편집가의 수정양상을 연구한 마크카넨(Markkannen 1997)의 연구는 학술텍스트의 편집전후의 태도전환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헤지표현과 같은 메시지전달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편집가들은 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명제적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메시지의 전달태도를 결정하는 언어적 요인들에 대해 편집가나 번역가는 원천텍스트저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환이 발생한 경우,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으로의 전환 수치가 보다 높다는 점은 태도전환을 결정한 번역가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전달을 보다 명시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번역이란 특정행위에서 보편적 특성으로 언급되는 명시화가 요청표현의 번역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사전연구로 볼 수 있는 신진원(2013)의 신문사설 헤지표현의 영어와 한국어간의 번역양상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헤지표현이란 명제적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채 메시지의 전달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으로 전달태도의 단호함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설명된다(Hyland 1994). 따라서 이런 결과들은 요청표현이나 헤지표현과 같은 메시지전달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어적 요인들에 대한 번역가의 선택은 메시지 전달의 명료함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신문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문 간 태도전환 양상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표 5〉 신문 간 전환유형별 빈도수 비교

	전환(무)		전환(강)		전환(약)		전환(무표적)		합계	
중앙일보	34	37%	30	32%	6	6%	23	25%	93	100%
한겨레신문	49	55%	20	22%	9	10%	12	13%	90	100%
동아일보	50	67%	7	9%	11	15%	7	9%	75	100%

전반적으로 메시지전달태도의 전환발생의 크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천 텍스트 저자의 선택을 그대로 반영한 번역이 가장 많았지만, 『중앙일보』에서 ‘전환(무)’ 외에 다른 유형의 태도전환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전환양상을 살펴보면,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는 같은 패턴으로 태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모두 보다 직접성이 보다 강한 쪽으로 요청표현이 번역된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는 직접성이 약한 쪽으로의 전환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동아일보』처럼 원천텍스트에서 요청표현 자체가 가장 적게 발생하고 태도전환역시 가장 작은 비율로 나타난 번역에서는 직접성이 보다 약화되는 쪽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결과는 태도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번역일수록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태도전환이 덜 발생할수록 직접성이 약한 쪽으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태도전환을 번역가의 개입과 연관 지어 논해보면, 번역가의 개입이 많을수록 메시지전달태도는 보다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전환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 3.2.2. 텍스트 단락별 태도전환양상

텍스트 구조적 측면에 대한 분석으로 각 단락별 요청표현의 번역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텍스트 단락별 전환유형 비교

제목	전환(무)		전환(강)		전환(약)		전환(무표적)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제목	9	19%	24	51%	10	21%	4	9%	47	100%
서론	8	67%	0	0%	1	8%	3	25%	12	100%
본론1	11	58%	4	21%	1	5%	3	16%	19	100%
본론2	23	59%	3	8%	2	5%	11	28%	39	100%
본론3	24	62%	11	28%	2	5%	2	5%	39	100%
결론	58	57%	15	15%	10	10%	19	18%	102	100%

먼저, <표 6>에 의하면, 한국어원천텍스트에서 요청표현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은 제목과 결론이다. 그 다음은 본론2와 본론3에서 요청표현이 자주 나타났다. 이것은 신문사설의 제목에서 저자의 입장을 제시하거나 화용적인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서 요청표현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단락별 번역양상을 들여다보자. 우선 제목에서는 앞서 전반적인 번역양상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환유형으로 설명되었던 ‘전환(무)’보다도 직접성이 높은 쪽으로의 전환인 ‘전환(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 9]

ST: 무책임 장관, 무기력 정권

TT: Mend the appointments fiasco

<한겨레신문 2013. 9. 3>

이것은 [예 9]에서처럼 요청표현이 아예 없었거나 약한 암시로 표현된 요청표현들이 목표텍스트에서는 명령문으로 전환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전환(강)의 출현빈도는 결론을 포함한 다른 부분에서의 빈도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로 요청표현의 한영번역에서 보다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의 번역양상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은 제목임이 확인된다.

하지만 직접성이 보다 약한 쪽으로의 ‘전환(약)’ 등 다양한 태도전환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결과는 영어사설제목의 경우 한국어사설보다 저자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화간 차이가 반영된 경우이다. 이것은 목표문화의 기호학적 특징을 따르려는 시도 역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제목에서는 메시지 전달의 명료함을 추구하게 되는 ‘전환(강)’과 목표문화인 영어신문사설의 화용적 특징을 따르기 위해 선택된 ‘전환(약)’ 양상이 모두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제목에서 번역가의 개입이 가장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한다.

서론과 본론1, 본론2에서는 ‘전환(무)’의 유형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나타난 요청표현의 경우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태도를 대체적으로 형태적인 등가나 의미론적 등가에 초점을 두어 번역되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본론2이다. 본론2는 본론3과 비교해 요청표현이 나타난 빈도수는 똑같으나,

본론2에서는 태도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전환(강)’이나 ‘전환(약)’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같은 범주 안에서 형태적인 전환만을 한 ‘전환(무표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결론으로 이어지기 위해 저자의 입장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본론3에 이르기 전까지는 요청표현의 번역은 목표문화의 화용적인 측면이나 기호학적 측면의 등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원천텍스트 저자의 선택을 고수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론3와 결론은 제목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비해 태도전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특히 ‘전환(강)’은 본론3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한국어사설이 본론에서 문제 제기와 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에 관한 논증과 주장을 결론에서 하는 반면 영어사설의 경우는 보통 본론에서 ‘문제-해결’과 ‘논증’이 주로 본론에서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어 영어사설에서 보다 단언적인 태도로 요청을 전달하는 특징을 한영번역과정에서 또는 편집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결론은 ‘전환(무)’와 ‘전환(무표적)’이 다른 부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결론부분에서의 번역가의 선택은 태도전환을 유발하는 과감한 전략보다는 원천텍스트의 표현을 목표언어 안에서 보다 자연스런 표현 정도로 전환시키는 것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요청표현의 번역양상은 단락별로 달라진다. 저자의 메시지가 함축된 제목, 그리고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저자의 주장이 집약되는 본론3에서는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의 전환이 일반적인 반면, 결론을 포함한 그 외에 단락에서는 태도의 전환을 감지할 수 없는 무표적인 전환이나 일치가 보다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신문사설에 나타난 요청표현의 직접성을 중심으로 신문사설번역에서의 태도전환양상, 그리고 텍스트 구조적 측면에서 단락과 전환양상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았다. 원천언어인 한국어에서 목표언어인 영어로의 번역과정에서 요청표현이 갖는 직접성의 정도가 바뀌면서 저자의 메시지전달태도가 전환

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 분석결과는 목표언어의 화용론적 맥락이 반영되는 쪽으로 태도가 명확히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전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발생한 경우라도 한국어보다 직접성이 더 약할 것이라고 논의되는 목표언어의 텍스트에서 직접성이 강한 표현으로의 양상이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은 신문사설 요청표현의 번역은 화용론적 등가의 차원보다는 메시지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는 번역전략이 번역에서 우선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문사설 한영번역의 경우 목표텍스트의 독자가 목표언어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원천언어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독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목표문화에 맞춘 적극적인 화용론적 등가가 번역가의 최우선의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이로 인해 번역가의 선택은 적극적인 태도전환보다는 원천텍스트 저자의 선택을 번역과정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소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텍스트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신문사설과 같이 텍스트의 구조가 정형화되어있는 장르에서 번역가의 태도전환은 단락의 특징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제목, 서론, 본론, 결론 등 각 단락별로 태도변화의 양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제목에서는 다양한 태도전환유형이 발생했는데, 번역가가 메시지를 함축하는 제목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목에서의 태도전환도 결국은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의 전환양상이 높았다는 점도 번역가의 개입이 커지면 직접성이 보다 강한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번역가의 초점이 메시지의 명료한 전달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설의 요청표현과 같이 저자의 메시지전달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표현들의 번역은 화용론적 등가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락별 특징이나 메시지 전달의 명료함과 같은 태도전환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탐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용진 (1999)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1): 119-49.
- 김용진 (2003) 「신문 사설 제목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1(1): 31-54.
- 김혜영 (2012) 「번역 기사문의 다시쓰기 양상 연구」, 『작문연구』 14: 67-106.
- 김혜영 · 강범모 (2011) 「신문 사설의 어휘적 특징」, 『담화와 인지』 18(3): 89-112.
- 마승혜 (2011) 「장르기반 평가어 한영번역 교육: 실행 연구를 통한 효과 분석」, 『번역학연구』 12(4): 69-97.
- 신명선 · 박재영 (2004) 『신문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 신진원 (2013) 「신문사설 번역에서의 헤지 표현 연구: 한·영/영·한번역에서의 태도전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 유현주 (2009) 「한영신문사설의 비교 분석과 EFL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윤시은 (2008) 「대학생의 요청화행: 그 특징과 공손성, 간접성의 관계」. 한국언어학회 2008 겨울연구회 발표 논문, 121-29.
- 이남성 (2003) 「한국 신문 사설의 장르 특성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3: 125-46.
- 이종철 (2005) 「신문 사설의 요청 화행 표현의 양상 연구」, 『국어교육』 116: 221-55.
- Bolivar, Adriana (1994) The Structure of Newspaper Editorials. In Coulthard, R. M. (ed.), *Advances in Written Text Analysis*. London: Routledge. 276-94.
- Becker, Judith A. (1982) ‘Children’s Strategic Use of Requests to Mark and Manipulate Social Status’, In Kuczaj, S. (ed.),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Hillsdale, NJ: Erlbaum. 1-35.
- Blum-Kulka, Shoshana, Juliane House & Gabriele Kasper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Bonyadi, Alireza (2011) 'Linguistic Manifestations of Modality in Newspaper Edito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Linguistics*, 3(1): 1-13.
- Giannoni, David S. (2008) Disciplinary and Linguistic Identities in the Journal Editorial Genre. In Di Martino, G. et al.(eds), *Identity and Culture in English Domain-specific Discourse*. Napoli: Edizioni Scientifiche Italiane.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ranslator*. London: Longman.
- Hyland, Ken (1994) 'Hedging in Academic Writing and EAP Textbook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3: 239-56.
- Koller, Werner (1995) 'The Concept of Equivalence and the Object of Translation studies', *Target*, 7(2): 191-222.
- Mauranen, Anna (1997) 'Hedging in Language Revisers' Hands', In Markkanen, R. and H. Schröder (eds.), *Hedging and Discourse.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a Pragmatic Phenomenon in Academic Texts*. Berlin: Walter de Gruyter. 115-33.
- Mey, Jacob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Munday, Jeremy (2001)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 Snell-Hornby, Mary (1995) *Translation Studies - An Integrated Approach*, Revised Ed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부록: 분석텍스트 출처

중앙일보

번호	날짜	한국어제목	영어제목
1	10.22	국정원 ‘트위터 공작’ 의혹, 진상 규명 피할 수 없어	End the controversy, period
2	10.19	부실대학 강제 퇴출이 최우선이다	Drastic college reforms needed
3	10.19	해외무역관은 국회의원 관광 가이드가 아니다	Kotra is not a tourist agency
4	10.17	전세계 인재가 몰려드는 대한민국을	Establish an immigration office
5	10.16	스스로 선전전의 도구로 떨어진 국감 의원들	Stop the childish games, please
6	10.15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 괴담은 괴담일 뿐	Rumors are just rumors
7	10.12	몰카,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	Stronger penalties for voyeurism
8	10.9	일본 재특회 혐한 시위 폭언은 인종 차별	Japan must act against hate
9	10.6	주목되는 케리의 북미 불가침조약 발언	Sophisticated diplomacy needed
10	10.5	경기회복 빨간불, 경제운용 재검토해야	No rose-colored glasses, please
11	10.3	‘골프장 체포’ 김명수 의장, 시민 대표 자격 있나	Shame on the Seoul council chair
12	10.2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Who passed this law?
13	10.1	채동욱 의혹, 퇴임으로 끝난 것 아니다	Prove your innocence publicly
14	9.30	예산 낭비 부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Create good jobs in private sector
15	9.25	‘NLL 대화록’ 수사,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Stop stalling on the Roh transcripts
16	9.25	차기 전투기 가능한 최고 성능 갖춰야	Get the right fighter
17	9.23	복지 공약, 구체적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Cut welfare plans or increase taxes
18	9.23	북한 이유 불문하고 이산가족 상봉 나서라	The reunions must go on
19	9.13	고용률보다 고용의 질이 문제다	Behind the employment numbers
20	9.9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환영한다	Tokyo's tasks before the Olympics

## 한겨레신문

번호	날짜	한국어제목	영어제목
1	10.29	미국은 우방국 대통령 도청했다면 사과해야	The US should apologize for its illegal wiretapping
2	10.29	모순투성이의 일본 집단자위권 용인론	The need for a vision for South Korea's military future
3	10.22	장애인연금만이라도 대선 공약 지켜야	The pension promise to the disabled must be kept
4	10.20	전교조 불법화,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	Government must stop persecuting teachers' union
5	10.16	국익에 반하는 엠디, 참여해선 안 돼	Stay out of the US-led missile defense system
6	10.7	한계에 부딪힌 전략 부재의 '신뢰프로세스'	Need practical solu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7	10.4	역사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안돼	Japan's militarization should not be condoned
8	10.3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 본격화해야	Use dialogue to find way of resolving N. Korean nuclear issue
9	9.27	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	Pres. Park's halfhearted apology after again making empty promises
10	9.26	'이석기 사건' 기소 이후의 과제들	Both UPP and NIS need to learn their lessons and reform
11	9.24	오락가락하다 무산된 차기전투기 사업	Time to learn from the jet fight project's failure
12	9.23	불통 정권에 백기 든 무기력한 야당	Back in parliament, opposition party must continue its fight
13	9.15	대량파괴무기 폐기 선례 돼야 할 '시리아 합의'	Recent Syria agreement bodes well for dealing with N. Korean nukes
14	9.12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관계 진전 밑거름으로	Capturing the momentum of Kaesong's reopening
15	9.9	일본엔 역사 직시하라며 베트남엔 침묵하는 모순	Do not ignore suffering caused by South Koreans while in Vietnam
16	9.9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누구 압력인가	Project Cheonan shows ongoing fight for freedom of expression
17	9.2	진보당내 합리적 목소리를 기대한다	Embattled progressive party needs to find some common sense
18	8.15	꼭 막힌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 푸는 전기 삼아야	Time to implement the vision of Pres. Park's independence Day address
19	8.13	아베 일본, 계속 '동북아의 화근'으로 남을 셈인가	On Korean Independence Day, Japan must accept its responsibility
20	8.2	개성공단 이대로 고사시킬 셈인가	Don't let the Kaesong Complex die due to minor disagreements

동아일보

번호	날짜	한국어제목	영어제목
1	10.23	8종 역사교과서, 교육부의 수정 권고 수용해야	8 history textbooks should accept correction recommendation
2	10.22	내분과 외압에 흔들리는 검찰 믿을 수 있나	Prosecutors are swayed by internal conflict and external pressure
3	10.19	사이버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리더십 발휘할 때	Time to display leadership as powerhouse in cyber space
4	10.18	북, 교화소에서 죽어가는 85세 국군포로 석방하라	N. Korea must release ailing S. Korean POW
5	10.17	기업인 국감증인들이 절감하는 국감무용론	Ineffective parliamentary audit sessions trouble entrepreneurs
6	10.16	인구 변화 적시 반영해 선거구간 인구편차 줄이려	Population deviation should be narrowed down to reflect demographic changes
7	10.15	탈북자 관리에 구멍 승승 뚫렸다	Loopholes in North Korean defector management
8	10.28	북, 특구 외자유치하려면 개성공단 국제화 앞장서라	N. Korea should step up to internationalize Kaesong Park
9	10.14	원자력 비중 축소, 경제성 있는 대안은 있나	What is an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 to nuclear energy?
10	10.12	노조의 불법 행위 더는 안 된다는 20억 배상 판결	Court orders workers to pay 2 billion won in damage to curb illegal strikes
11	10.10	‘삼성-애플 특허분쟁’ 오바마의 이중잣대 문제 있다	U.S. President’s no-veto decision is a double standard
12	10.11	한국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일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22nd World Energy Congress to present new energy technology
13	10.9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가 중국의 럽 서비스 아니길	China should fulfill the promise over friendly fishing
14	10.8	교육의 질 높은 자율형 공립고 폐지할 일 아니다	Gov’t should not eliminate independent public high schools
15	10.7	공룡 포털 황포에 권고안만 달랑 낸 미래부	Light warning issued against giant portal’s monopoly
16	10.5	북, 불가침 조약 준비 케리 발언에 어떻게 답할 건가	How will N. Korea respond to Kerry’s non-aggression remarks?
17	10.4	외부 세력은 밀양을 떠나라	Outsiders must leave Miryang
18	10.3	경기회복세의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퍼져야	Economic rebound should trickle down
19	10.2	북인권 범죄 기록, 민간에만 맡겨둘 순 없다	Seoul should document N. Korea’s human rights crimes
20	9.26	전교조 연가투쟁 법대로 처리하라	Gov’t should act on teachers’ union as the law says

[Abstract]

### **Attitude Shift in News Editorial Translation**

Shin, Jin-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 success of communication in a written text is closely linked to what attitude its writer have toward its putative readers. For the reason, a writer tends to choose delicately linguistic resources which can shape the attitude. Unfortunately, however, the delicate choices compound translator's hardship, for the attitudinal meanings can be differently interpreted by the readers with different cultures.

This study explores how ST writer's attitude in delivering messages is changed in the process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news editorials. In particular, it mainly focuses on request expressions, key linguistic resources determining the attitude in news editorials, arguing attitude shifts in pragmatic and text structural perspectives.

For this study, 60 editorial texts and their translations provided by three leading news agencies are analysed under an analysis framework given by Blum-Kulka et al.(1989). The analyses are made to explore the overall tendency of the attitude shifts in Korean-English news editorial translation; and to examine how text structuring elements are related to the attitude shifts.

The result of the analyses shows that a translator tends to prioritize conveying messages clearly rather than finding pragmatic equivalents when translating linguistic resources for the attitude; and that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text influences translators' choice in shaping the attitude.

▶ Key Words: attitude shift, translating news editorials, K-E translation, request, text structure

신진원

부산대학교 BK플러스 연구원

sabinashin@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교육, 의미론, 번역투, 번역양상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6일